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삼위일체주일** : 오늘은 성부·성자·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책** :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특강 <사람책>이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시작합니다. 1강 : 뇌와 행동 (한상의 장로), 2강 : 바닷속 세계와 생명 (김재환 집사)

**수양회회의** : 전교인 여름수양회 준비회의가 오늘 오후 3:00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준비위원들은 모두 모여 주세요.

**떼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저녁집회는 떼제기도회로 모입니다.

**신앙실천** : 한 해의 중반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상 8:4-20 / 시 138	2부	롬 11:25-36
예배	고후 4:13-5:1 / 막 3:20-35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성실 윤영미 김향자 김혜정 송인선 박범희 허호범  
 다음 주 식당봉사 : 권미숙 강지선 조경자 고학준 윤찬란 최옥자 황재모 김대근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삼위일체주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시작된 무더위에 힘겨운 한 주를 지냈습니다. 무더위 중 잠시 찾아온 빗줄기가 반갑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 일희일비하며 지내느라 가야할 길을 놓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을 아끼며 눈빛을 바로하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와 세상 곳곳에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리와 차별의 빗금들을 지워주십시오. 지역, 성별, 직업, 피부색, 나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다움을 억압하던 수많은 분리와 차별에 저항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고후5:17 ..... 인도자
- ♣ 교 독 문 ..... 49. 시편108편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 대표기도 ..... 장영숙전도사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526. 목마른 자들아 ..... 다 함께
- ♣ 성경봉독 ..... I. 사6:1-8 롬8:12-17 요3:1-17 ..... 정운성 선생  
 ..... II. 마7:7-14 ..... 서수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 찬 양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찬양대
- 말 씬 ..... I. 거룩함을 보는 눈 ..... 김재흥 목사  
 ..... II. 어우렁더우렁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혜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성우	박유경	김애경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정민	이혜령	김정화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현동
오유경	김혜진	민지희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김인순	박상규
박상욱	박옥순	박옥식	박준희	이기분	방 민	배재경	이수정	성지현	신미라
신영희	신정훈	이은미	안정숙	오자영	윤성종	김윤정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용현	이우엘	이윤석	박안수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이준림	이지훈	이치림	강상연	임서영	임승동	백해숙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정현욱	최미자	최종원	추현영	한성건	정지혜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지현						

### 감사헌금

김 극	김기석	김희우	김민성	김용진	박효선	김진중	김태정	김향자	김형욱
문금석	박병구	김인순	배삼순	신영희	윤서준	이은혜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정경준	장규수	정선희	정희선	최용훈	김고은	나오미	1선교회	무명1	

### 생일감사헌금

양재민

### 녹색꿈헌금

박숙미 신영희 유성근 안상남 윤미경 윤수진 임형욱 나오미2선교회 무명4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 해 숙	박 성 희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베 다 니	박 흥 재	박 흥 재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랫	김 경 혜	홍 춘 숙		
다 메 섹	박 혜 경	박 혜 경		
두 란 노 1	김 재 흥	오 자 영		
두 란 노 2	김 재 흥	송 형 운		
두 란 노 3	이 범 석	이 진 영		
두 란 노 4	이 범 석	곽 상 준		
두 란 노 5	신 진 식	이 오 복		

##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사람도서관>은 사회 운동가 에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운동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 긍정적으로 격려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해받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사람도서관>은 사회에 대한 반작용같은 것이다. 사회가 각박하지 않고 사람간의 유대가 원만하다면 굳이 이런 <사람도서관>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 안에 인간관계의 결핍이 크다는 의미다.

<사람책>은 위에서 소개한 <사람도서관>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과교회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우들이 많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었다. <사람책>을 통해서 교우들 간 다양한 삶의 경험을 나누며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우들 중 전문적인 영역이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교우의 강연을 듣는다. 다섯째 주가 있는 달 다섯째 주일 오후에 시행한다.

- 청과교회 문화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	홍순복 집사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사십시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어우러짐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바는 이것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도 이 길입니다.	
다 함께:	아멘. 나의 욕심과 자존심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이웃의 눈물과 웃음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살겠습니다. 남이 나를 대접해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남을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사람책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기석 목사	하진솔 선생 김극 집사

5	영접위원	김정민 김종락 최재욱 박영신 이수정 이현순
	헌금위원	한완식 박미영

## 위악과 위선

... 교도소 재소자들 중에는 문신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년교도소에서 새겨 넣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만만한 상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一心, 복수, 필살, 죽인다, 건드리면 터진다, 뺨, 독 거미, 단도 등 가지각색입니다. ... 재소자들의 문신은 대개 서툴고 조악합니다. 이런 문신이나마 넣는 이유가 벌레들의 문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문신은 자기가 험상궂고 성질 사나운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위악'僞惡입니다. '위선'僞善과는 정반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먹이 있거나 성질이 있어야 한다는 광범한 합의가 저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 맞기도 합니다. ...

위악이 약자의 의상衣裳이라고 한다면, 위선은 강자의 의상입니다. 의상은 의상이되 위장僞裝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그 본질이 아닙니다. ... 강자들의 현장은 법정입니다. 검은 법의法衣의 엄숙성과 정숙성이 압도합니다.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La Marque de l'homme)은 클로드 모르강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독일군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프랑스 장교가 아내의 편지를 받고 격노합니다. 아내가 포로수용소에 있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쓴 편지였습니다. 자기 집 2층이 파리 점령군 장교 숙소로 수용되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층에 숙박하는 독일군 장교 두 명이 대단한 신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독일군 장교가 거실에서 피아노로 바흐를 연주했는데 연주 실력은 물론 바흐의 해석이 뛰어났다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남편의 분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자의 위선에 관한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와

그 인간성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입니다. 예술과 지식이란 것이 얼마든지 위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드 권력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의상은 의상일 뿐입니다.

... 나는 교도소를 '산'山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쫓겨 들어온 산이 교도소입니다. 그 험악한 범죄자들 속에서 어떻게 20년을 살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험악함의 상당 부분은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입힌 옷이기도 합니다.

... 약자의 위악과 강자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위악은 잘 보이지만 강자의 위선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

그러나 강자가 모두 위선적이지도 않고 약자가 모두 위악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자 중에는 파시스트를 자처하는 위악적 인물도 많고, 반면에 위선을 무기로 삼는 약자도 없지 않습니다. ...

아우슈비치에 대한 최고의 증언자로 평가받는 프리모 레비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우슈비츠를 운영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것이 일부 괴물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었다면 얼마나 다행한 것일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요점은 위선과 위악의 베일을 걷어내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오디오와 비디오의 현란한 조명, 그리고 수많은 언설이 만들어 내는 환상 속에서 우리가 그 실체를 직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더 큰 원인은 이러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 이해의 천박함에 있습니다. ... 공부是我们的 동공을 외부로 향하여 여는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심화하는 인간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